

효성, 자산 1726억원 매각 추진

유가증권 1160억원에 부지 566억원 매각 ... 차입금 1005억원 감축

효성이 분식회계로 잃어버린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1726억원 상당의 유가증권과 유휴 부동산을 매각한다.

효성은 2월27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KTF, 대한유화, SK텔레콤 등 평가액이 1160억원에 달하는 보유 유가증권과 평가액이 566억원에 달하는 조치원공장, 울산공장, 서울 당산동 땅 등을 매각해 총 1726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2월23일 1525억원에 달하는 해외 현지법인 분식회계를 시인하고 2001년 이후 재무제표를 수정한 바 있다.

이상태 재무담당 상무는 “가장 손실이 컸던 효성아메리카는 회계법인을 교체했다”며 “Clean Company로 거듭나기 위해 본사는 물론 해외 전 지역에 ERP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문제에 대해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2006년 매출 5조1000억원, 영업이익 2100억원을 올리겠다”면서 “국내 1000억원, 해외 2000억원 등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은 차입금 규모를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2006년 말 기준 1조4382억원으로 2005년보다 1005억원 줄일 계획이다.

한편, 효성은 공시를 통해 2005년 4/4분기에 398억원 영업손실과 672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적자전환했고,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됐으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1조 2198억원으로 집계됐다.

<화학저널 2006/03/02>